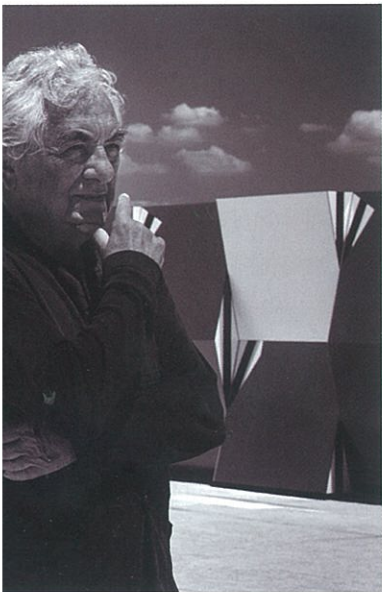


HOT ART SPACE



다니엘 뷔렌, <한국의 색, 인 시튀 작업(Les Couleurs au Matin Clame, travail in situ)>
2019 동아미디어센터, 서울. <동아일보> 제공



다니엘 뷔렌, <한국의 색, 인 시튀 작업> 3.20~2020.12.30. 동아미디어센터

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동아미디어센터가 2020년 <동아일보> 창간 100주년을 앞두고 예술로 재탄생했다.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현대미술작가 다니엘 뷔렌이 한국에서 처음 선보이는 <한국의 색, 인 시튀 작업(Les Couleurs au Matin Clame, travail in situ)>은 동아미디어센터 외관을 장식하는 장소 특정적 설치작업이다. 건물 5층부터 20층까지 16개의 층을 두 부분으로 나눠 8개의 색을 입혔다. 건물 하단부터 차례로 부착한 노랑, 보라, 오렌지, 진빨강, 초록, 터키블루, 파랑, 핑크 컬러 필름은 한국의 색을 상징하며, 강철과 유리로 된 건축적 특성을 고려해 선택했다. 낮에는 햇빛으로 인해 색이 내부로 유입되고 밤에는 건물 내부의 형광등을 통해 빛을 확산시킨다. 청계천 주변을 걷는 사람들은 날씨와 태양의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시각적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.